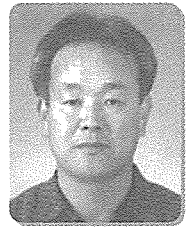




##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마을발전 구상을...



이 상 만  
전북 무주군 수락마을 이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 이장 이상만입니다. 우리 마을은 대전고속도로 덕유산(안성)인터체인지에서 덕유산 방향 약 4km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칠연계곡, 덕곡계곡 등의 관광지가 가까워 농촌관광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나, 관광객을 마을로 유치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주’ 하면 깊은 산골짜기를 생각하는데, 우리 마을은 무주에서 가장 너른 들을 가진 안성면 상류의 농경지에서 유황오리 쌀과 우렁이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을 친환경 농업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하였고, 장기적으로 안성면 상류 수계내의 마을들을 엮어서 친환경농업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사과

‘안성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발 600m 이상의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달고 맛있는 반딧불이 사과입니다. 마을에 공동사과밭을 조성하고 친환경 사과인증도 이미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민들이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농촌마을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 마을도 노령화와 소아 인구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 농촌관광을 생각했을 때는 “시작만 하면 무조건 될 것이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에 들어가자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 아무리 설득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주민들, 게다가 행정 절차는 이런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전의 사업들은 주민총회를 거쳐 신청하면 되었는데, 예비계획서를 내고 평가를 통해 한참 후에 선정되다 보니,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고, 항상 말만 앞서는 사람으로 비취진 저의 모습에 비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실시한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전문가과정 교육』을 받고서야 “아!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와 자체적으로 경비조달을 해가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교육을 하였고, 우리 마을이 모델로 삼을만한 선진지 견학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무주군, 안성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설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갔습니다. 서서히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마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년초에는 권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완성한 ‘안성면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불미스런 문제가



있어 아직 보류 중에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희망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사례 발표: 능길마을 박천창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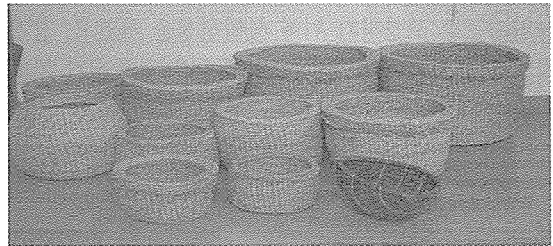
제5기 도농녹색교류대학 마스터플랜발표(2004. 11.27)

현재 저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4월 1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농녹색교류 최고지도자과정을 우리 지역 주민 3명과 함께 다시 한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욕심인 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마을발전 구상을 한번 더 점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개인적으로 교육신청을 하였습니다. 막연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마을가꾸기를 생

각하고 계신 분들은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운 후에 사업신청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락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옛날의 따뜻한 시골인심, 윗사람을 공경하는 효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삶의 자원을 잘 살리고 단합하여 풍요롭고 장수하는 마을로 만들어 도시로 나갔던 젊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도시민들이 이주해 와서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는 우리 안성면, 우리 무주군의 마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민들과 건전하고 즐거운 지속적 교류를 해나가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짚/땡땡이땡굴 공예품

### 수락마을에서 추진해온 일들

-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도시민 유치기반 마련
- 도시민들의 사과따기 체험 실시 (2004년 11월)
- 다목적 경관 사업으로 소공원, 야외수영장 조성
- 전농가주택 개량, 생활하수 종합 처리시설 설치
- 전 가구 화장실 수세식화
- 깨끗한 하천 살리기 운동 실시(2004년도 전라북도 1위, 충청도 1위 시상. 상금 400만원과 마을 입구에 장승 2기 세움)
- 무주군 아름다운 마을 1위(상금 100만원)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신청서 제출